

치 사

폭염으로 힘들어 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아침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 분위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면서도 차분히 나를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마음마저 풍성해지는 좋은 계절에 이렇게 뜻을 모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써 주시는 것은 의미가 깊고 감사한 일입니다.

전통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이며 긍지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듯이 전통문화는 문화의 기초이자 정체성이며, 문화산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현재 세계 각 나라는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전통문화는 선진 국가를 가늠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굴뚝 없는 산업, 즉 문화산업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종교를 초월하여 내·외국인들로부터 각광받는 문화트렌드로 발돋움한 것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예입니다.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전통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며, 오늘날 전승되어온 전통문화의 상당 부분이 불교문화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웃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전통문화가 아

닌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법·제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존을 위한 규제 일변도여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창달이라는 헌법 정신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라는 특정 종교 지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통문화 지원이라는 시각과 입장,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시안적 지원 시각을 탈피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의 발전과 창달을 위하여서는 보존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제도에서 장려와, 지원을 위한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는 역사이며 시대정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의원님들과 불자님들께서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의 건전한 시대정신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기2556년 9월 20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